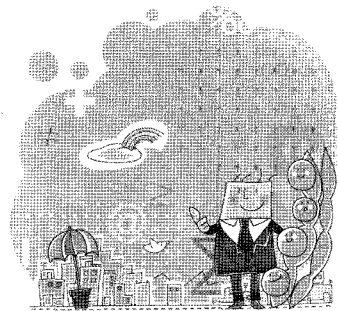


전자산업 현장애로 조사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와 애로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처·기관별 실무자 198명으로 구성(단장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되었다. 6개 부처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이고, 5개 기관은 산업단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6개 광역경제권별 11개 산업단지와 그 인근 지역 개별 중소기업 등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전반적 경영상황, 하도급거래·인력·자금 등 현장애로를 상세히 살펴 보았다. 1,46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별도 실시하였다.

업종별 조사결과를 보면, 휴대폰, 가전의 전자 부품의 경우 수급구조 특징으로 핵심 부품은 대기업 생산 또는 수입에 의존하고, 중소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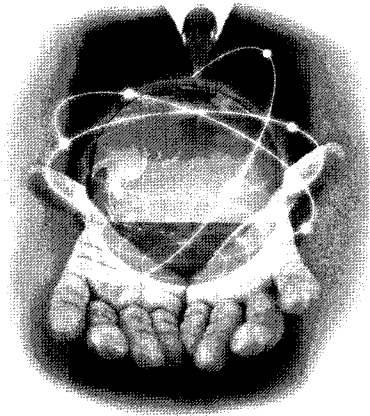
범용부품(외장·회로 등) 위주로 공급된다.

협력업체간 경쟁이 심하고, 중국 업체 진입 후 단가인하 압력이 가장 심한 분야이다.

체감경기 상황은 휴대폰 경우 가격경쟁, 해외 생산 비중 증가, 주력품목 전환(스마트폰) 등에 따라 매출 및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 악화되었다.

가전의 경우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수출확대로 경기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거래물량 변동성이 크고 부품의 해외조달 증가로 일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하였다.

주요 애로요인으로 하도급 경우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구두발주, 매출 급감 등 하도급관련 애로 다수이다.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공정개선 등을 강요하고 (소요비용 전액 협력업체 부담), 원가절감 성과 만큼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



구두발주로 생산설비 증설 요구후 타 경쟁업체에 발주하여 투자금액 5억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도급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조사전에 이미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전화해 지침을 주는 실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5%이상) 해 왔고, 중국 현지 생산단가와 비교해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인력에서 대기업과의 임금차이, 중소기업 기피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대졸이상 직원은 근본적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오더라도 잦은 이직 등으로 젊은 기술·기능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장비의 경우 수급구조 특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장비·재료 → 생산」의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구성, 他산업에 비해 협력업체 수가 많지 않고, 1차 협력관계 위주이다.

필요 부품소재 종류(개)는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70, 자동차 2.5만, 조선 90만이다. 1차 협력업체수('09년, 개사)는 반도체 160, 디스플레이 170, 자동차 340, 조선 3,000이다.

생산장비·원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 모기업 경영성과의 중소기업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산업구조이다. 국산화율(%)은 (반도체) 재료 46, 장비 26, (디스플레이) 부품 35, 장비 50이다.

체감경기 상황은 납품단가에 대한 불만은 다소 있으나, 업계의 전반적인 호황으로 당분간 매출 및 이익 상승을 기대한다.

타 분야에 동시 납품하고 있는 화학·기계 분야 2차 협력업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더 많이 존재한다. 높은 가동률(80~90%대)과 매출액 증가추세(2~2.5배)로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업체가 다수이다.

주요 애로요인은 인력에서 지방 중소도시 소재기업의 경우 R&D 등 고급인력 수급난 극심하다. 사례로서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07년 대졸 공채를 통해 19명을 선발하였으나, 이후 19명 전원 퇴사하였다.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다.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가 수도권에만 몰려 계속 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받았다. 기술에서 업종 특성상 R&D 투자금 부족, 특허분쟁 등 기술관련 애로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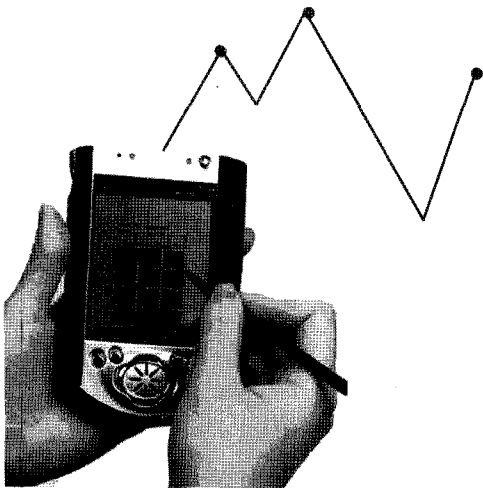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의 경우, 수급구조 특징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전속성과 협력관계의 밀도가 他산업 대비 높다. Toyota 사태 이후 부품품질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 증가하였다.

체감경기 상황은 완성차 업체의 내수·수출 호조로 협력업체들의 체감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재가격 상승도 납품단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다수이다. 특히, 철판 등 원자재를 사급(賜給 : 모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여 공급) 받는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애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기업 규모, 계열사 여부, 협력단계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주요 애로요인은 하도급에서 일부 완성차 업체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률이 낮아 협력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협력관계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납품단가, 대금결제 조건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사례로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조정되지 않아 연간 4~5억원의 손해 발생, 거래단절을 무릅쓰고 항의 제기 중이다. 모기업이 1차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반영해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2차 이하 업체에게는 제대로 반영해 주고 있지 않다. 인력에서 국내 기능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력 활용 제



한 등으로 인력난이 지속된다.

전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매출액과 가동률 측면에서는 금년 들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설문조사 결과, 백만원)은 ('08) 16,000 → ('09) 17,472 → ('10.상) 10,196이고, 평균 가동률(설문조사 결과, %)은 ('10.4) 73.5 → (5) 74.4 → (6) 75.5이다. 금융위기 전후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통계청, %)은 ('08) 69.3 → ('09) 68.3이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 등으로 체감경기의 개선은 아직 부족하며, 대기업 대비 회복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업체의 50.3%만이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업종분야 및 협력관계, 수출비중 등에 따라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자동차부품 분야는 내수·수출호조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보이고, 조선·전자 등 다른 업종은 대체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 업종은 '08년 하반기 이후 대형 조선소의 수주급감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기회복이 지연되었다. 주로 범용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휴대폰 분야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실적이 두드러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미미한 것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적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협력관계에서 1차 협력업체들에 비하여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에서 수출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보다 건설자재, 의류등 내수 위주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느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애로요인은 주로 ①하도급 거래상의 문제, ②인력수급 문제, ③자금조달 애로로 조사되었다.

우선 하도급 거래상 문제의 경우 공급망 하단(2차 이하 협력업체)에 있거나, 범용기술 기업일 수록 하도급 거래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다.

인력 수급 문제의 경우, 범용기술 위주 기업

이나 뿌리산업 등 3D 업종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은 R&D 인력 등 전문인력 채용에 애로 호소 업체가 다수이다.

자금조달 문제의 경우,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자금조달 애로는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재 구입 등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증비율 축소 등 보증 및 대출심사가 강화되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8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